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1
12

기획특집

2011 한우산업 결산

2012 설시장 전망

현장르포

홍천·김천 우시장을 가다

포커스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추한해 수고 없이 달려온
20만 한우 농가 여러분
당신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C·O·N·T·E·N·T·S

기획특집 03-05

2011 한우산업 결산
2012 설시장 전망

현장르포 06-07

홍천·김천 우시장을 가다

포커스 08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이슈 09

근출혈 피해보상 TF회의

Information 10-11

KREI 축산관측

Information 12

2012 구제역 백신접종 안내

Information 14

한우자조금 이렇게 씁니다

애독자 코너 & 전문점 소개 15



악재 많았던 2011년을 보내며...

올해 한 구직사이트의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보낸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이란 질문에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의 '수무푼전(手無分錢)'을 꼽아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우산업도 2011년 참으로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반(反)축산정서를 불러온 구제역에다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한우 산지가격 하락, 한·미FTA 국회 통과, 미국산 쇠고기를 중심으로 한 쇠고기 수입 급증, 사료가격인상 등 도처에 악재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민족의 자존심 한우의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012년을 한우처럼 뚝뚝뚝 준비해야 합니다.



암소도태장려금-백신접종 시술비 예산 확보... 농가 지원위해 총력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산업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암소도태장려금의 지원과 FMD예방을 위해서는 50두 이하의 한우 농가에 대하여는 백신접종 시술비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 요청과 별도로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암소도태장려금의 필요성과 생산지 농민의 실태와 현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암소도태장려금은 단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우협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암소도태장려금과 백신접종 시술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될지! 지원액이 얼마일지! 대상암소는 몇 개월까지 인정할지! 언제부터 시행될지!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고 예산 확보가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암소도태장려금의 지급을 기대하고 출하에 임박한 암소의 출하를 미루시기 바랍니다.

암소도태장려금 또한 미경산우, 1산우나 2산우까지가 대상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특집 | 2011 한우산업 결산

한미FTA 통과 · 사육두수 증가 다양한 프로모션... 소비기반 확대는 '긍정적'

한우산업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반(反)축산정서가 심화된 가운데 사육두수마저 크게 늘어나 한우 산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합의와 한·미 FTA 국회비준안 통과 등으로 한우산업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고, 올해 발표된 축산업 선진화대책으로 농가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농식품부, 농협이 주축이 돼 진행한 소비촉진행사가 한우소비량을 이끌어냈고,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한우소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추석에는 소포장의 선물세트를 구성해 홍보함으로써 '명절선물은 한우'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위기의 2011년 한우산업을 정리하고 2012년 한우시장을 점검한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지난 정부때부터 진행돼온 한·미 FTA비준안이 지난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한·미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미 FTA협상내용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세는 현행 40%에서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우족이나 꼬리의 경우 현행 18%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된다. 이와 동시에 한·미 FTA의 조항으로 도입된 세이프

가드(Safe Guard)제도의 발동요건은 FTA발효 1년차에 27만톤에서 해마다 6,000톤씩 증가해 15년차에는 35만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우산업은 해마다 4,438억원의 피해가 예상돼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은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품목은 축산업과 과수인데 그중 한우산업의 피해가 특히 심할 것"이라며 "쇠고기의 경우 세이프가드가 있지만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사육두수 증가로 한우가격 하락



❀ 세이프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의 경쟁업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 발동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기획특집 | 2011 한우산업 결산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반(反)축산정서가 심화되고, 경기침체로 한우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부터 지적됐던 사육두수 증가문제가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며 국내 한우 총 사육두수가 3월에는 273만3,753마리에서 6월 290만 4,812마리, 9월 290만 1,077마리로 사육규모가 적정사육두수를 크게 넘어서며 지난해 1등급 지육 kg당 1만6,871원을 기록했던 한우 지육 가격은 올해 1만3,803원으로 3,000원가량 하락했다.

이같은 지육가격하락은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농협 축산지원부에 따르면 4~5개월령의 암송아지의 경우 지난해 평균이 217만4,000원이었는데 지난달 30일에는 117만3,000원으로 100만원 가량 하락했고, 지난해 평균 240만2,000원을 기록했던 수송아지는 128만1,000원까지 하락해 약 112만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농협·한우자조금, 소비촉진행사 추진



구제역 이후 소 값 하락에 따라 한우협회, 정부, 농협, 한우자조금은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 각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는 한우고기 반값 할인행사와 시식행사, 덤 증정행사 등을 진행했고, 한우자조금은 구제역이 끝난 직후 소비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와 함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해 한우소비를 크게 신장시켰다.

지난 추석에는 농촌진흥청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이 공동으로 추석맞이 한우선물세트를 마련해 국내의 각 기업 등에 판매를 진행했으며 전국 한우농가가 주축으로 '매주 금요일은 한우먹는날' 행사를 통해 관공서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소비캠페인을 진행했다.

이같은 소비촉진행사로 인해 2011년 도축두수는 큰폭으로 증가, 올해 1~11월까지 등급판정두수는 64만147두로,

작년 동기간 대비 17.5% 증가했으며, 2010년 1~12월까지의 총 판정두수 60만2,000두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30일에 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 사업목표를 '소 값 안정'과 '소비기반확대'로 정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도마위에'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소값이 낮아진 가운데 송아지 번식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다.

그러나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하여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입장이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지금의 떨어진 소값을 해결하고자 생산안정제 개편이나 도태장려금 지급 등으로 농가를 혼든다면 파동을 촉발할 수 있다"며 "지금 생산되는 송아지는 3~4년 후의 한우고기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 만큼만큼 지금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입 쇠고기 파상공세 이어져



한우시장의 불황과는 반대로 수입쇠고기의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2009년 19만7,856톤 수준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은 2010년 24만5,086톤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에는 10월까지의 수입량은 24만4,573톤으로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가 컸는데 2009년 4만 9,973톤에 불과했던 수입량은 지난해 9만569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수입량만 9만1,166톤으로 수입쇠고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산 외규 등 고급육보다는 중저가 쇠고기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
설시장
전망

유통업체, 전년 설대비 물량 15~40% 늘려잡아 제품 양극화 더욱 심화, 업체별 차별화 전쟁 본격화

설 대목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은 구제역 영향으로 판매폭이 크게 떨어졌던 2011년 설 손해분을 2012년 설 판매를 통해 만회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며 설 대비 물량을 최대 40%까지 늘려 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백화점들의 물량 증가폭이 더욱 큰 상황으로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전년 설대비 30~40%가량 물량을 늘려 준비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백화점이 올해 설대비 30%가량 물량을 늘렸고, 가격은 전년 추석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량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AK백화점으로 한우 선물세트 물량을 전년 설 대비 35% 늘려 잡았다. 특히 주력제품인 갈비세트는 전년 설과 비교해 40% 높게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렴한 가격 정책으로 판매를 최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중 물량 증가분이 큰 편으로 전년 설대비 30%가량 물량을 늘려잡고 설특수를 준비하고 있다.

업체들의 가격 정책도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 설 선물세트 시장에서 나타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돼 초저가 제품에서 100만원을 호가하는 초고

가 제품까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는 업체별로 차별화전략이 더욱 심화돼 설 선물세트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AK 백화점은 백화점 업계에서는 드물게 8만원대의 초저가 한우불고기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반면 양평개군한우와 횡성한우 등에서 특수부위와 최고급 등급으로만 구성된 100만원대의 제품도 함께 출시할 계획이다. 신세계 백화점도 10만원대 실속상품 5,000세트를 준비,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한편 신세계 직영 목장에서 생산한 한우 중 1++ 등급만 엄선해 90만원대의 초고가 상품도 선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설 판매가 워낙 부진해서 전년 설과 비교하면 설 대비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며 “전년 추석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5%가량 늘어난 상황으로 가격에 있어서는 전년 추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설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



대형마트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해 업체별로 15~30%까지 물량을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대비 15% 가량 물량을 늘려 잡고 전년보다 저



현장르포 | 홍천·김천 우시장을 가다

홍천 우시장

떨어진 소값 '한숨' ...비육농가 입식시기 '저울질'

겨울이 완연했던 지난 6일, 차가운 바람보다 더 추운 가격하락의 한파가 불고있는 홍천 우시장을 찾았다. 홍천 우시장은 떨어진 소 값을 걱정하는 농가의 한숨으로 상쾌한 새벽공기마저 무거운 느낌이다. 거래가 한창인 가축시장에서는 150여마리의 소와 송아지가 보였고 단돈 만원이라도 더 받으려는 판매자와 깎으려는 구매자사이에서 흥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암송아지, 사료값이라도 건지면 감지덕지

우시장의 한 편에 만들어진 모닥불 주위에는 출하나 구매를 원하는 농가와 우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송아지 값이 떨어져서 어쩐대”로 인사를 갈음하는 듯 했다.

“암송아지 쪽정이는 80만원도 안나가. 송아지 볼출만 알면 저런 애를 안사지. 80만원이 뭐야! 70만원도 감지덕지지.”

모닥불 앞에 있는 야원 송아지를 바라보며 말을 꺼내

자 이내 모여든 농가와 우상인들 사이에서 한바탕 품평회가 벌어졌다. 암송아지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부실한 송아



지는 100만원 밑으로 거래되는게 당연한 일이고 웬만한 송아지들도 사료값이라도 건지면 팔아야하는 분위기였다.

돌아가봤자 한두달내에 갑작스럽게 송아지 값이 몇 십만원이 오를리도 없으니 오며 가며 차비를 더 들이고 사료 더 먹여서 파느니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팔고 가는게 상책이라는 것이다.

한 농가는 “적당한 가격에 팔면된다는 것을 몰라서 안파는게 아니라 원가도 안되니 못파는 것”이라며 “송아지 한 마리 출하할때까지 사료값만 130만원의 넘게 들어가는데 80~90만원에 팔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산안정자금에 다 나와봤자 안정제 기준가격도 안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피부로 와닿는 대책 없어 불안감 여전

7시 무렵이 되자 해가 점차 떠올랐고 아직 소를 팔지 못한 사람들은 흥정에 바빴고 이미 거래됐던 송아지들은 여러차례 주인을 바꾸고 있었다.

팔리지 않을 것 같던 송아지들도 가격을 낮추며 자연스레 흥정이 오갔으며 송아지를 구경하는 농가들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졌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싼 값에 송아지를 파는 농가도 불안하겠지만 사려는 농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번식농가는 반토막난 송아지 가격이 불안하겠지만 저처럼 비육하는 농가는 소 값이 언제 회복될지 몰라 불안하죠.” 강원도 양구에서 비육농장을 운영하는 임병희 양구목장 대표는 소 값이 언제회복될지, FTA로 한우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몰라 불안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FTA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대책도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코트를 스치고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보다 한우농가의 겨울은 더 춥게 다가오는 듯 했다. ☹

김천 우시장

뒤쳐진 정부정책 불만...13개 대책안도 '허울뿐'

“10만원 안주면 안판다카이” 한파가 매섭던 지난 15일 김천 우시장에 들어가자 몇만원을 두고 흥정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초 102만원에 송아지를 사려고 했던 사람은 만원씩 더 얹어주며 흥정을 시도했고 송아지를 내놓은 농가는 11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팔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만 해도 200만원은 넘게 받았을 송아지인데 불과 한달새 반토막이 났다.



가격 떨어졌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가격 떨어져서 한우농가들이 다 죽어가도 된 대책이 있겠능고? 소가 이리키나 많은데 가격을 이 만큼이라도 유지했으면 협회나 자조금에서도 할만큼 한겁니다.”

수년간 전국한우협회 김천시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지금은 한우자조금의 대의원이기도 한 이정오 씨는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이미 작년부터 예견된 일이었는데 소가 많아져서 생긴 불황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농가의 불만을 달랬다.

김천 우시장 휴게실에서 만난 김천의 한 농가는 “소 값이야 내릴때도 있고 오를때도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정부의 정책이 언제나 너무 늦다”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송아지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줄이라고 독촉한다면 농가가 정부 정책을 믿겠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농협은 왜 수수로 안내리나

‘밤새 안녕’이라더니 많은 농가가 한달만에 반값에서 1/3까지 떨어진 송아지 가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고 일부 사람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 축협측에 더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송아지 값이 100만원인데 운송료 떼고 경매장 수수료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90여만원 밖에 안되니까 울화통이 터지는 거 아잉고.” 휴게실에 앉은 한 한우농가는 연신 담배를 피워대며 울분을 토했다.

13개 대책안도 ‘빛좋은 개살구’

여·야·정 합의로 내놓은 13개 대책안도 농가에서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인듯 했다.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죄다 용자로 주면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냐는 것이었다.

한 농가는 “여기 와 있는 대부분

의 농가가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추가적인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농가도 별로 안 될뿐더러 준다고 해도 갚는 것이 무서워서 갚다 쓰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경매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고 농가는 모두 흠어져 경매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해가 조금 더 떠오르자 영하의 추위는 점차 가셨고 경매에서 2번의 유찰 끝에 헐 값에 송아지를 판 농가는 쓴웃음을 지었다.☹





포커스 |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2012년 한우자조금, '소 값회복' 우선과제

제2차 대의원회 개최... 사업규모 274억원 책정

한우자조금은 지난 20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를 열고 2012년도 274억여원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우자조금은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 적정두수를 초과하는 공급과 한·미 FTA와 질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불안심

리 고조,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수입육의 공세 강화 등 한우산업을 둘러싼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소 값 회복과 한우 고기 소비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 2012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2012년도 한우자조금사업 예산안은 2011년과 비슷한 274억여원으로 세입은 농가거출금 124억8,000만원과 정부지원금 77억여원, 이월금 72억 등이다.

내년 한우자조금은 TV·라디오 홍보 사업부문에 올해보다 5억원이 증액된 42억5,000만원을, 한우고기소비촉진행사에 77억원을 편성하는 등 소 값 안정사업을 강화해 수급안정사업부문에 102억9650만원(37.6%), 소비홍보부문에 69억2,310만원(25.2%),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48억1,268만원(17.6%) 등을 책정했다. 또 제3기 대의원 선출에 따른 선거 비용 5억원도 함께 편성했다. 다만, 지난해 39억여원이 책정됐던 예비비 성격의 수급안정기금을 전액 삭감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집행실적을 제고키로 했다.

한우자조금은 공급과잉과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촉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업체 동참을 통한 대대적인 할인 판매 등 원가 판매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 붐을 조성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TV광고 및 PPL 등 지속적인 언론노출을 통한 소비자의 한우고기 소비 욕구를 창출하고 암소 자율 도태에 기반한 할인판매,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우고기의 차별화를 통한 소비촉진 사업도 병행해 실시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를 통해 한우의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한우의 차별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제시를 위한 연구 사업, 웰빙법에 대응한 저지방육 홍보 진행과 더불어 소비자변 확대를 위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육두수 안정화를 위한 암소 위주의 소비촉진행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협유통매장을 통해 지난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암소 할인 판매를 진행한 한우자조금은 농식품부, 농협과 공동으로 12월 중순과 설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또한 2011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중 9억5,000여만원을 증액해서 TV와 라디오 광고 및 협찬에 6억원, 설 명절 대비 유통업체 연계 한우소비 촉진에 2억5,000만원, 한우 농가조직화지원과 농가기술교육에 1억여원 투입키로 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춘천 이중호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전(前)의장인 조위필 대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㉞



이슈 | 근출혈 피해보상 TF회의

‘가축재해보험 소도체 결함보장’ 상품개발

근출혈 피해보상 TF회의, 내년 10월부터 NH보험서 판매 추진



한우 사육농가들에
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근출혈과
관 련 하 여
‘근 출 혈
피해보상
TF 회
의 ’ 가
농 식 품
부, 전국
한 우 협
회, 한우
자조금,
농협중앙
회,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임·직

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

일 한우자조금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NH보험 손해보험부는 ‘가축재해보험 소도체 결함보장 특약’을 통해 도축 후 경매 시까지 발견된 소도체 결함으로 인한 경락가격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을 완료 (2011년 6월)하였으며, 전산프로그램이 완비되는 2012년 1

월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특약(보험료율 0.214%)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성(one point) 보험 개발에 대해 보험 계약자, 보험료 부담 비율, 보험료 납입 주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안을 NH보험에서 2012년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12년 10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농협중앙회 음성공판장 김옥 경매실장은 도축장(공판장)이 중심이 되는 원포인트 보험제도(안)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즉, 출하자·도축장(공판장)·정부가 보험료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며, 도축장(공판장)이 보험 가입 주체가 되므로 근출혈 감소를 위해 노력하게 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행 등급 판정을 위한 절개 부위로는 근출혈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과 같이 늑골(갈비) 6~7번 사이의 등심을 절단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연구를 통해 절단부위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현재 등급판정 결과를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발송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근출혈 발생 시에도 농가가 문자메시지 및 기타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방안(공시제) 또한 제시되었다.

한우자조금사업 경제적 효과는?

적극적인 소비촉진 활동과 조사연구사업 필요

한우자조금 사업이 높은 경제적 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 연구과제 최종 보고회를 갖고, 한우자조금의 평균투자이익률(14.10)이 한계투자이익률(단기 9.99, 장기 8.94)로 나타나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2005년 8월 한우자조금홍보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후 올해 6월까지의 광고비 지출 대비 한우고

기 수요량 증가를 분석한 것이다.

이날 보고에서는 또 한우산업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비촉진활동과 조사연구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70여억원이라는 한우자조금의 사업규모에 맞는 선진화된 관리경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산지와 소비단계의 가격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



12월~내년 2월 한우 지육 도매가격 13,000~14,500원(1등급) 전망

2월과 내년 3월 사육 마리수는 올해 9월보다 감소 전망

12월~내년 2월 도축은 10%, 쇠고기 수입량은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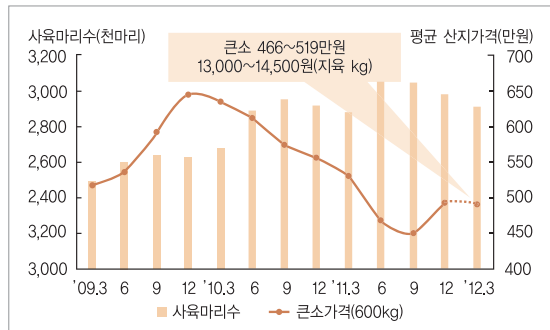
* 12월 한육우 사육마리수 각각 298만마리

- 가임암소 증가로 9월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3.2% 증가한 304만마리
- 내년 3월 한육우마리수는 전년보다 많으나 9월보다는 감소한 291만마리 전망

* 도축마리수 증가로 12월~내년 2월 쇠고기 공급 전년보다 증가

- 출하 대기물량이 많아 12월~내년 2월 도축마리수는 전년(17만8천마리)보다 10.3% 증가한 19만7천마리로 전망
- 수입육 재고가 많아 12월~내년 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6만1천톤)보다 적은 6만톤 미만으로 전망

◆ 한육우 사육마릿수 및 가격 전망



* 공급량 증가로 12월~내년 2월 한우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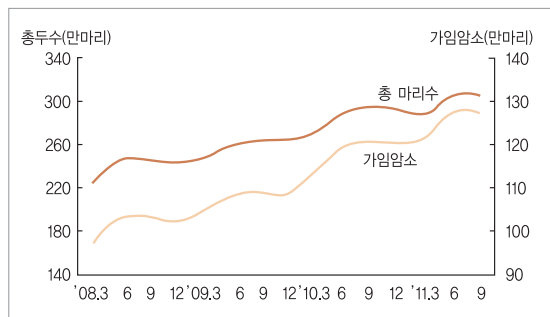
- 도축마리수 증가로 12월~내년 1월 한우 지육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8% 하락한 13,000~14,500원 전망(생체 484~519만원, 1등급 600kg 기준)

● 한육우 사육 동향 및 전망

* 9월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3.2% 증가

- 도태지연으로 가임암소마리수가 증가해 9월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3.2%(9만4천마리) 증가한 304만마리로, 그중 한우 사육마리수는 290만 1천마리(4.1% 증가)였다.
- 가임암소마리수는 127만7천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6만4천마리(5.3%) 증가했다.
- 한육우 사육 농가수는 16만8천호로 전년 동기보다 7천호(4.0%) 감소하였으며, 호당 사육마리수는 18,81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1,2마리(7.1%) 증가했다.

◆ 한육우 사육 동향



* 자료 : 통계청

* 2012년 송아지 생산 잠재력 2011년보다 낮아

- 한우 정액 판매량을 이용한 올해 12월~내년 2월 송아지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5.5% 높게 나타났다. 구제역으로 올해 1, 2월 인공 수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일시적인 송아지 공급 공백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에 정액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 1~10월 정액 판매량이 감소해 2012년 송아지 생산마리수는 2011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육우 성별·연령별 사육 동향과 사육호수 현황

(단위 : 천마리, 천호)

구분		'09.9	12	'10.3	6	9	12	'11.3	6	9	12	'12.3
사육호수		176	175	176	175	175	172	171	71	168		
총 마리수		2,641	2,635	2,706	2,889	2,949	2,915	2,881	3,053	3,044	2,978	2,908
품종별	한우	2,489	2,477	2,553	2,734	2,788	2,762	2,734	2,905	2,091		
	육우	152	158	153	154	161	160	147	148	143		
성별 연령별 마리수	1세미만 암수	372/473	376/467	370/463	404/494	417/514	411/499	399/469	425/469	430/510		
	1~2세 암수	318/387	320/382	338/396	343/412	347/418	349/414	347/403	352/423	356/426		
	2세이상 암수	932/159	925/165	967/173	1,024/211	1,034/220	1,029/220	1,039/225	1,100/247	1,094/227		

※ 자료 : 통계청(2011년 12월과 2012년 3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한육우 사육마리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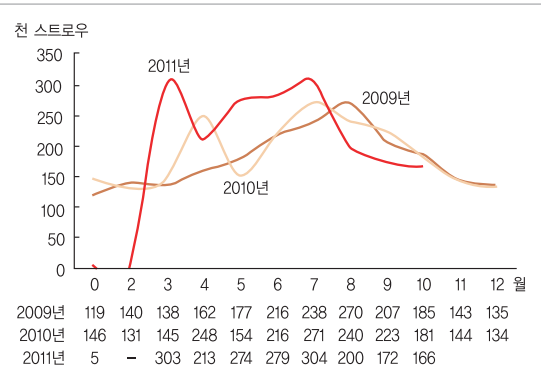
(단위 : 천마리)

기 간	송아지생산	도축	한육우 사육마리수
'11년 3월~5월	329(319)	171(145)	'11년 6월 : 3,053(2,889)
6~8월	209(212)	224(158)	9월 : 3,044(2,950)
9~11월	159(155)	209(195)	12월 : 2,978(2,921)
'11년 12월~'12년 2월	183(194)	197(178)	'12년 3월 : 2,908(2,881)

※ 주 : 괄호 안은 전년 동기 수치임

※ 자료 : 통계청(2011년 9월과 12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한우 정액 판매량 추이



※ 자료 :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우 농가 송아지 입식에 관망

- 송아지 입식의향 조사결과, 송아지 입식을 계획보다 증가시키겠다는 농가의 비율이 전분기(2.5%)보다 낮은 1.6%로 조사되었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발동 등 가격 급락으로 한우 전업 농가는 송아지 입식 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내년 3월 사육마리수 291만마리로 감소 전망

- 12월~내년 2월에는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고 도축마리수가 증가해 2012년 3월 한육우 사육마리수 증가 폭은 2011년 9월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12월과 내년 3월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2011년 9월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보다는 각각 1.9%, 0.9% 증가한 298만마리, 291만마리로 전망된다.

● 쇠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 12월~내년 2월 도축마리수 10.3% 증가 전망

- 출하 지연 물량이 많아 12월~내년 2월 도축마리수는 전년(17만8천마리)보다 10.3% 증가한 19만7천마리로 전망된다.

★ 쇠고기 수입량 감소 전망

- 재고 증가로 8월 이후 수입량 감소세가 이어져 올해 12월~내년 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6만1천톤)보다 적어 6만 톤 미만으로 전망된다. ☺



Infomation | 2012 구제역 백신접종 안내

50두이상 한우사육농가 내년부터 구제역 백신비 50% 자부담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 통해 공급

50두 미만 농가는 기존과 동일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5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공급이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구제역 무상공급은 4차 일제접종(2011년 12월~2012년 1월)까지만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업규모 이상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구입비용의 지원체계를 자부담 50%, 국비 35%, 지방비



15%로 변경하고, 백신공급체계도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가격의 50%를 부담, 구제역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게 된다. 판매가격은 조달단가에 유통비용(실비)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50%의 백신가격은 시·군에서 축협동물병원에서 지급한다.

이와는 달리 전업규모 이하의 농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구제역 백신 무상공급과 접종반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백신공급 지원대상 농가구분은 11월말 기준으로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반기별로 사육규모를 파악해 전업규모 여부를 구분해 지원범위를 조정하며 시·군은 해당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5월과 10월 두차례 걸친 일제접종 및 수시접종을 위해 전업규모 2,400만두, 소규모 800만두 등 총 3,200만두분의 구제역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모두 280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에 나섰다. ☺

전업농가

조달청과 백신공급업체간 단가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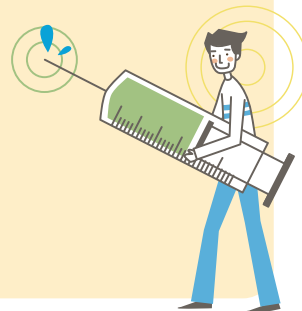
백신공급업체에서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으로 유통

축산농가에서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 구매(백신가격의 50% 부담)

시·군에서 축협동물병원으로
백신가격의 나머지 50%를 지급

소규모농가

시·군에서 조달구매 및 무상공급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이야기 책자 발간

‘음메~ 내말좀 들어보소~’

최근 우리나라 돼지를 한돈(韓豚)이란 이름으로 부르곤 하지만 그 이전까지 한(韓)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가축은 오로지 소, 한우(韓牛)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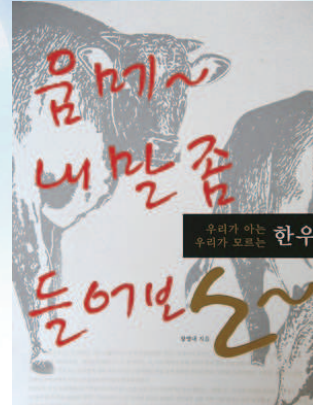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음메~ 내말좀 들어보소~ 우리가 아는, 우리가 모르는 한우!’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축산과학원 홍보팀 관계자는 이런 한우의 옛날 이야기에 서부터 △요즘 한우 이렇게 기른다 △한우고기에 먹치다 △사회 명사들이 이야기하는 한우를 다양한 사진과 함께 풀어냈다.

‘음메~ 내말좀 들어보소~’는 지난해 말 편집이 완료되고 출간까지 마쳤지만 구제역으로 인해 보급되지 못했다.

농진청은 발간 후 1년이 지난 12일 한우 이야기 책자를 전국의 축산 관련 기관과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홍보팀 관계자는 “한우는 이제 한반도의 재래소에서 세계가 알아주는 ‘HANWOO’로 진화하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한우의 멋과 맛을 담은 ‘한우 찬가’를 책으로냄으로써 국민에게 한우를 제대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책속 내용 中

‘7성급 요리사’ 스타셰프 에드워드 권 ‘한우 스테이크 하우스’를 꿈꾼다

언젠가 강원도 횡성을 지나면서 한우식당에 들러 고기를 먹다가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서울시내 유명 고깃집에서는 한우고기가 꽤 비싼데 한우직판장은 상황이 달랐다. 일반 고깃집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다 맛도 최고였다.

‘한우 산지에서는 부담없이 맘껏 먹을 수 있는 가격인데 대도시 고깃집은 한우가 너무 고가라서 쉽게 먹을 수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돌아서는 발길이 무거웠다.

생각해보면 셰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네임브랜드를 내세워 무조건 비싸야 명품이라는 생각으로 음식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내 생각에는 셰프가 비싼 명품요리만 팔면 대중에게 외면받기 마련이다.

물론 명품에 대한 갈망으로 돈을 모아서 일 년에 한 두번 찾는 고객이야 있겠지만 살아 숨쉬는 시장으로 가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명품 안에서 또 다른 명품을 만들자는 거다. 합리적 명품 시장을 통해 수요를 늘려 타깃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 한우는 명품화 전략만 내세우다 보니 대다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최상급 한우는 비싼 가격이 마땅하지만 한우가 너무 고

가로만 형성되면 자칫 한우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한우는 비싸다’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한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본 화우의 경우 최고급육 브

랜드뿐 아니라 중저가형 브랜드도 있어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시장 공략이 이뤄지고 있다.

한우 고깃집이나 레스토랑의 메뉴가 등심, 안심구이나 스테이크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앞으로는 소의 부위에 따라 가격과 다양한 조리법을 보여주는 레스토랑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등심이나 안심스테이크만 있는 레스토랑이 아닌 엉덩이살, 뒷다리살 등 비선호 부위로 만든 한우 요리도 필요하다. 한우 림프(소의 우둔살)로 맛있고 가격도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지도가 높은 셰프가 권한다면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뀔 것이다.

가격 거품이 빠진 한우가 직거래로 공급될 경우 ‘에드워드 권의 한우 스테이크 하우스’도 열 수 있다. 들어서면 신선한 한우를 손질하는 퍼포먼스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게다가 가격도 싼 한우 요리를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는 레스토랑을 상상해보시라. 손님이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원하는 부위별로 주문하고 조리법도 골라 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우리 한우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여긴다. 한우를 맛본 서양 셰프들은 하나같이 놀란다. ‘고베비프가 동양에서 제일 좋은 쇠고기인 줄 알았는데 한우 맛이 아주 훌륭하다’면서 감탄사를 연발한다. 이는 한우의 맛과 상품성이 뛰어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한우 명품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웠다면 이제 해외시장 공략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청소년
맛체험

&

인공수정
교육



청소년
맛체험



11. 22 경기 광주 만선초



11. 30 충남 아산 온양중



12. 09 경북 경산 경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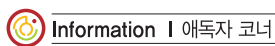


12. 16 전남 광주 조대여고

인공수정
교육



11. 22 농협 전남지역본부



한우소식 이모저모

쇠고기 유통 투명성 강화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전산신고 대상 확대...직원 5인이상으로
농식품부, 5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부터 쇠고기를 유통할 때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을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전산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10개 권역별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인 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전산신고 대상 확대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소비자는 판매되는 쇠고기의 상세한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2년 우수축산물브랜드 한우부문 30개 선정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서 선정하는 2012년 우수축산물 브랜드의 인증발표회가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총 50개의 우수축산물 브랜드 중 한우가 30개를 차지했으며 돼지가 18개, 육계는 2개의 브랜드가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한우 브랜드는 경주천년한우, 녹색한우, 늘푸름홍천한우, 단풍미인한우, 대관령한우, 명실상감한우, 물맑은양평개군한우, 보들곶제주한우, 소리산향토조랑우랑, 안성마춤한우, 애우, 영암매력한우, 영주한우, 장수한우, 지라산순한한우, 참예우, 참품한우, 천하1품, 청풍명월한우, 총체보리한우, 치악산한우, 토바우, 팔공상강한우, 하이록한우, 한우람, 한우령한우, 함평천지한우, 함천황토한우, 햇토우랑, 황성축협이다.

애독자 코너



2011년 한해가 어느덧 떠나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1년은 한우산업에 있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한우농가 모두에게 희망찬 날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20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2년 한우자조금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미 FTA와 질병 발생 등 한우산업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우자조금은 0000과 한우 고기 소비 확대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공격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결정했습니다. **2012년 한우자조금의 우선과제는 무엇일까요?** 한우자조금 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보내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11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김현(전남 무안군), 최승삼(충남 예산군), 홍동기(전북 정읍시), 김철수(경북 영천시), 이화재(충북 제천시), 이성태(전북 진안군)

전문점 소개

대풍가

전화 : 02-511-9388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1-1



한우 암소의 담백함과 전복의 쫄깃한 맛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이곳은 땅 위의 제왕인 한우와 바다의 패왕인 전복이 맛

의 자용을 겨루는 경영장이라 할 수 있다. 한우와 전복이 이루어내는 환상적인 조합은 그래서 빛난다. 2주간 숙성으로 깊고 부드러운 맛의 한우 암소와 탱글탱글한 살집에 바다향 가득한 전복의 맛은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진미다. 그렇게 한우와 전복의 맛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행복은 배가 되고, 이쯤되면 전국의 식도락가들에게는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출 제8권 제24호 통권 제74호 발행일 2011년 12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케이미아파트 3층 기획총무부, 홍보마케팅부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2층 교육조사부 Tel : 02-522-3607~8 Fax : 02-522-4314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INCOM Tel :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암소 사육두수 줄이기' 한우산업 안정을 앞당깁니다!

- 한우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어섰습니다.
- 가임암소가 150만두로 현재 공급과잉 상태이며,
우리가 암소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가 지속됩니다.
- 암소 사육두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 암소 할인판매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 암소 할인판매】

- 기 간 • 1차 : 12월 16일(금)~25일(일), 10일간
 • 2차 : 설 명절 이후(예정)
- 부 위 불고기, 국거리(1등급 이상)
- 판매목표 암소 4만두 (예정)
- 판 매 처 농·축협 축산물 판매장
(지역상황에 따라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